광주시체육회는 12일 염주체육관 주변에서 시체육회 전직원과 가맹경기단체 임원·감독·코치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하계U대회 광주 유치 기원 가두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U대회 유치 체육인도 '파이팅'

광주시체육회 '광주 유치 가두 홍보 캠페인'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을 10여일 앞두고 광주시체육회가 대회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응원 열기를 높이기 위해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12일 오후 4시 염주체육관 주변에서 시체육회 전직원과 가맹경기단체 임원·감독·코치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하계U대회 광주 유치 기원 가두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열린 가두 캠페인은 염주종합체육관을 출발해 월드컵경기장·원광대한방병원을 거쳐 다시 염주종합체육관으로 돌아오는 약 7.5km의 거리를 걸으며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염원하는 문구가 담긴 어깨띠와 모자를 착용하고, 유치 기원 플래카드를 들고 염주종합체육관 주변을 걸으면서 환경미화작업과 함께 시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국제 대학 스포츠 행사인 하계U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속에 광주시를 알리고 아울러 광주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반드시 광주가 유치해야 한다"면서 "개최지 결정이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송상현 광주시체육회 전무이사협의회장은 "체육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기단체 전무이사·코치 등 일선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되고 아울러 시민·선수들에게도 수준 높은 국제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새벽 4시까지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일원에서는 '대회 유치기원 철야 응원전'이 펼쳐진다. 응원전에는 2천여명의 시민과 학생, 공무원들이 참가해 현지 FISU총회를 실황중계로 지켜보며 대회 유치를 기원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셔틀콕 성적 '이용대 하기 나름'

개최국 中 한국 견제 위해 경기일정 변경 등 텃세

혼복→남단→남복 順… 이용대 체력 부담 변수로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로 떠오른 이용대(21·삼성전기)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셔틀콕 국가대항전인 제11회 세계혼합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주최국 중국이 대진 방식을 작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두 종목을 소화해야 하는 이용대의 체력적인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배드민턴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오픈대회에서 혼합복식-여자단식-남자단식-여자복식-남자복식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복식 전문인 이용대의 경우 첫 경기 혼합복식을 뛴 뒤 3, 4시간의 휴식을 취하고 남자복식에도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중국이 라이벌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혼합복식-남자단식-남자복식-여자단식-여자복식 순서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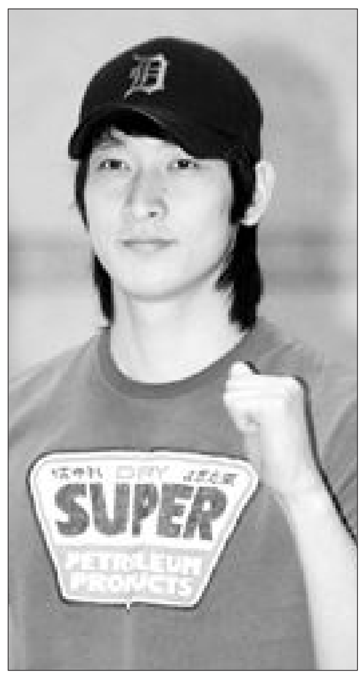
대표팀 관계자들은 단 한번도 이런 대진 방식은 없었다고 전했다. 매치 순서가 이렇다 보니 이용대는 첫 경기 혼합복식을 뛰고 난 뒤 숨 돌릴 틈도 없이 남자복식에 나서야 한다.

10일 말레이시아와 개막전에서 이용대는 이효정(삼성전기)과 짝을 이룬 첫 경기 혼합복식에서 3세트 접전을 벌인 뒤 2경기 남자단식에 출전한 장영수(김천시청)가 세계랭킹 1위 리총웨이에게 31분만에 0-2로 무너지자 곧장 코트에 나서야 했다.

대표팀에서 가장 막내뻘인 이용대는 "체력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아직까지는 뛸 만하다"고 내색을 않고 있다.

중국의 텃세로 인해 최악의 대진표를 맞이한 한국은 이용대가 남자복식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치느냐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의 이용대(가운데)가 이효정(왼쪽에서 두번째)과 함께 지난 11일 중국 광저우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혼합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혼합복식 예선에서 말레이시아 선수가 짧게 넘긴 볼을 받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팀 우승시키고 왔어요"

獨 배구 문성민 귀국

약 8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온 문성민(23·프리드리히스하펜·사진)은 밝은 모습이었다.

시즌 도중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지만 막판 대활약으로 팀의 5연패에 기여한 문성민은 내년 시즌 거취에 대해 "주변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라면서도 "좋은 조건에서 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거취 결정에 가장 큰 요소"라고 강조해 KEPCO45 입단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는 그러면서 혼자서 밥과 빨래 등 일상생활을 챙겨야 하는 점이 독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임대환 단장 등 KEPCO45 관계자들이 대거 나와 문성민을 환영했다.

/연합뉴스

대불대 안현수 장사 등극

대통령기씨름 개인전 장사급

대불대 안현수가 제46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장사에 올랐다.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안현수는 12일 강원도 인제체육관에서 열린 대학부 개인전 장사급(105.1㎏ 이상) 결승에서 이경수(단국대)를 들배지기에 의한 돌려차기로 제압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소장급(80㎏)에서는 임태혁(경기대), 역사급(105㎏ 이하)에서는 서석호(영남대)가 각각 우승했다.

단체전에서는 경남대가 인하대를 4-1로 누르고 올시즌 첫 정상을 차지했다.

경남대는 첫째판에서 박정석이 김민성(인하대)에게 패했지만 이준기, 남원택, 홍승원, 이민섭이 잇따라 이겼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중계

13일(수)

▲NBA 플레이오프 〈휴스턴 : LA레이커스〉(11 : 30·MBCESPN)

▲전국장사씨름대회 (13 : 50·KBSN S-PORTS)

▲프로야구 〈기아 : 한화〉(18 : 10·KBSN SPORTS), 〈삼성 : 롯데〉(18 : 30·MBCE-SPN), 〈두산 : 히어로즈〉(18 : 20·Xports), 〈SK : LG〉(21 : 0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요코하마〉(17 : 50·SBS스포츠)

조선대 하키 대회 3연패 눈 앞

인천전문대 꺾고 결승 올라

협회장기남녀하키대회

조선대 하키팀이 대회 3연패를 꿈꾸며 결승에 올랐다.

조선대는 12일 경북 성주 국제하키장서 열린 제28회 협회장기남녀하키대회 남대부 준결승에서 이지찬(3년·3골)과 전병진(1년·2골)의 골 세례에 힘입어 인천전문대를 5-1로 가볍게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2007·2008년 대회를 석권한 조선대는 대회 3연패까지 노리게 됐다. 이날 경기에서 조선대는 전병진이 전반 2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후반 들어 조선대는 이지찬이 세번의 페널티 코너를 잇따라 성공시켜 4-0으로 크게 앞서며 승부를 일찌감치 결정지었다. 후반 20분 한 골을 허용한 조선대는 32분께 전병진이 첫골에 이어 마지막 골을 기록하면서 5-1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13일 오전 11시40분 한국체대와 대회 패권을 놓고 한판승부를 펼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우디 축구 설기현

4개월만에 데뷔골

'스나이퍼' 설기현(30·알 힐랄)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리그 진출 4개월 만에 데뷔골을 터트렸다.

설기현은 12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알 샤밥과 사우디킹컵 준결승 2차전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25분 동점골을 터트리며 팀의 2-1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알 힐랄에 합류한 설기현은 정규리그와 크라운프린스컵,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득점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225-1688
H.010-3565-2888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아파트 (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지역	소재지	면적	층/층수	감정가	최저가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금호동 금호베스트빌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금호동 라인아파트	37	17/9	1억2000만	8400만
	마륵동 희망가	32	15/8	1억9000만	1억3300만
	풍암동 현대삼환	49	16/1	1억8000만	1억2600만
	화정동 남화아파트	47	10/9	1억6500만	1억1500만
	쌍촌동 용산그린	33	17/15	9000만	6300만
	화정동 e편한세상	55	22/22	4억	2억8000만
	금호동 라인아파트	37	17/9	1억2000만	8400만
	금호동 금호베스트빌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풍암동 금호타운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금호동 호반리젠시빌	33	20/7	1억4000만	9800만
	금호동 도시공사2단지	24	15/13	8200만	6560만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48	12/2	1억2500만	8750만
	주월동 명지아파트	44	20/13	1억3000만	9100만
	봉선동 금호타운	32	20/9	1억3000만	9100만
	주월동 영무예다움1차	39	15/6	1억5000만	1억500만
	진월동 고운하이플러스	32	12/1	1억4000만	9800만
	봉선동 명지아파트	27	15/5	6000만	4200만
	주월동 금영푸르미	32	20/9	1억2800만	8900만
북구	각화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6300만
	문흥동 현대1차	48	18/8	2억	1억4000만
	일곡동 현대2	24	19/15	7600만	5300만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37	22/1	1억2000만	840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55	15/8	1억6000만	1억1200만
	용봉동 푸른마을4단지	32	20/11	1억2000만	8400만
	두암동 모아미래도	32	15/13	1억5000만	1억500만
광산구	소촌동 라인2차	24	10/5	6000만	4200만
	우산동 주공아파트	24	5/2	5500만	3850만
광산구	도산동 우미아파트	24	13/10	5900만	4100만
	월계동 첨단쌍용	29	5/3	9800만	6800만
	월계동 첨단금호	34	15/9	1억1000만	7700만
	월곡동 영천주공	32	15/11	1억1000만	7700만
	운남동 삼성아파트	27	22/18	8200만	5700만
	월계동 첨단동부	34	15/8	1억3000만	9100만

주택 (내집마련/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 고
북구	두암동(두암동부근)	84/63	8400만	5800만	2층주택
	우산동 (풍선자동차부근)	40/41	8300만	4600만	2층주택
	용봉동 (유성파크부근)	38/46	8800만	4000만	2층주택
	두암동 (무등1차부근)	155/101	3억4500만	1억9300만	2층주택
	용봉동 (유성파크부근)	39/37	8000만	4500만	2층주택
	우산동 (무등도서관부근)	48/42	1억300만	4600만	2층주택
	용봉동 (전대기숙사부근)	34/53	7800만	5400만	2층주택
	두암동 (동평초부근)	42/23	1억2000만	4500만	단층주택
서구	농성동 (서석고교부근)	39/41	1억700만	4800만	2층주택
남구	백운동 (서광중부근)	42/23	1억2000만	4500만	단층주택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부근)	43/42	8400만	3000만	2층주택
화순	도곡면 (도곡동초교부근)	62/20	1570만	880만	단층농가주택
	이양면 (이양역부근)	100/31	6000만	3300만	단층농가주택
나주	남평읍(양동마을)	87/23	3600만	2500만	단층농가주택
곡성	입면(군촌부락)	105/35	6200만	2600만	단층농가주택

상가주택/근린시설 (내집마련/상가임대)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 고
서구	화정동(우미아파트옆)	231/313	11억	7억6600만	3층(마트/원룸)
남구	월산동(한방병원부근)	124/37	10억8500만	4억8800만	5층(식당/목욕)
남구	월산동(무진중도로변)	76/94	3억2000만	1억7900만	3층(상가/주택)

토지 (주말농장/전원주택부지/묘자리/투자)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논	749	6200만	4300만
	삼계면 월연리	밭	1128	5000만	3500만
	삼계면(수남마을)	밭	1128	5000만	3500만
	북이면 사거리	밭	1677	8400만	3700만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밭	2225	4430만	3100만
	법성면 삼당리	논	1544	4600만	3200만
	홍농읍 가곡리	논	1637	4000만	2800만

32

토지 (주말농장/전원주택부지/묘자리/투자)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서구	마륵동(서창역부근)	논	712	11억2000만	7억8000만
광산구	도산동 (송정초교부근)	밭	4412	20억8000만	14억6000만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논	511	1500만	1000만
	왕곡면 송죽리	과수원	2913	1억600만	7400만
	봉황면 와우리	논	2087	7800만	5400만
	대기동(기동마을)	밭	1946	9600만	5400만
화순군	동복면 칠정리	논	820	3500만	2500만
	이양면 강성리	임야	25316	6700만	4700만
	남면 (용안마을)	밭	408	1750만	1200만
	남면 (용안마을)	밭	555	5100만	3600만
	도곡면 천암리(온천)	대지	1359	6억7400만	4억7000만
곡성군	옥과면 (율사마을)	논	691	2500만	1100만
	목곡면 봉정리	논	852	1800만	1280만

숙박시설 (운영수익최상)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정가	최저가
서구	양동(월산로터리부근)	174/424	5층	14억7000만	5억2500만
	농성동 (서구청건너편)	140/538	5층	12억9000만	7억2000만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101/343	6층	13억4000만	9억4000만
화순	북면 (금호리조트부근)	1092/898	6층	17억4000만	3억2000만
북구	중흥동 (전남일보 옆)	120/403	6층	13억	5억8000만
	신안동(신안사거리)	106/343	5층	11억5000만	4억1000만

공장시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장덕동(하남공단 내)	1500/1454	2층	31억	16억
	용동 (평동공단 내)	400/265	2층	9억7000만	5억4000만
북구	대촌동(첨단산업단지)	798/912	3층	26억3000만	14억7000만
담양군	월산면(장재동마을)	1243/547	단층	4억3600만	2억4000만
나주시	봉황면(농공단지내)	1833/715	2층	7억8400만	4억3900만
영광군	법성면(굴비냉동공장)	889/193	단층	7억1200만	4억9800만

[주]한국경매는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 ☎(062)227-9600
• FAX:(062)227-9500

회춘
발기부전,조루,전립선 비대
천연(양기석) 부작용無 3일지속
큰놈(단소조루해결) 무료선물
20회분 66,000원
H·P 010-6218-1249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 놈'®
약, 수사, 링, 펌프가 아닙니다. 아내가 개발한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신제품 기구입니다. 달팽이 모양의 大, 中, 小(한 세트)로 구성되었고 실용신안 특허 등록되어 노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조루나 작은 분도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저렴하고 만족도는 제일 높은 불티나는 큰놈입니다.
저렴한 가격 99,000원
"꿈"을 이루는 파워마카
파워마카 100(분말) (마카원료로만 100%함유된 제품임)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삶의 질은 떨어지지요. 남성을 되찾아 기쁨을 누리는 황금기 인생으로 살아야 최고로 잘 사는 것이랍니다.
1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
23년간 같은 장소, 같은 주소지에서 도서출판 및 획기적인 공산품 개발과 수입오토바이를 서울본사와 일본 동경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담전화 010-8558-4114/02-2672-0454
010-8952-4114/02-2633-4110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
농협 307077-56-075592 예금주 전선영 입금 후 주소를 불러주시면 당일 발송 해드립니다.
통신판매신고증 제 19-5301호 / E-mail. yangko719@hanmail.net